

데스크시각

박진현



최근 메트로 폴리탄 미술관, 보스톤 미술관, 필라델피아 미술관을 둘러본 관광객이라면 적잖이 실망(?)한다. 세계 최고의 화려한 컬렉션을 자랑하는 미술관들이 데 무슨 소리냐고 하겠지만 사실이다.

올 여름 필자가 둘러본 상당수의 미국 미술관들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데다 규모도 작고, 관람객들을 맞이할 준비도 미흡한 실정이다. 규모는 작지만 관람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미술관도 찾아볼 수 없다. 건물 자체가 하나의 랜드마크인 미술관을 배경 삼아 근사한 기념사진을 찍으려면 계획은 일찌감치 단념해야 했다.

미국인 3분의 1 미술관 찾아

요즘 미국의 유명 미술관들은 마치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증축공사에 한창이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지난 2004년부터 총 공사비 9억 달러를 들여 미술관의 '무스 해럴드 D. 유리스 교육센터'를 확충하는 공사를 벌이고 있다. 필라델피아 미술관 역시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

에게 의뢰해 교육공간을 총 8만 평방 피트 늘리는 10개년 대역사(大役事)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미술관은 왜 앞다투어 증축공사를 벌이는 것일까. 여기에는 미술품 수집가들의 기부로 넘쳐나는 소장품

더도 말고 올 가을만 같아라

을 보완할 갤러리가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매년 급증하는 관람객들을 수용하는 '공적 공간(public space)'이 협소한 탓도 있다.

실제로 미국인들의 문화향유는 '미술관 교육'의 강국답게 미술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 미술관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술관(미술관·박물관·동·식물원 등 포함)은 가족끼리 가볼 만한 '베스트 여행지 3'로 꼽혔다. 지난 6개월 동안 미국인 가운데 3분의 1이, 또

하루 평균 230만 명(연평균 8억6천500만 명)이 미술관을 방문했다.

미술관 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화도 시라고 자부하는 뉴욕은 일 년 내내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록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들이 펼쳐진다. 수십 개의 뮤지컬 극장이 들어서 브로드웨이는 매일 밤 공연장을 찾는 시민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가난한 뉴욕객들은 브라이언트 파크, 뉴욕공립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열린 축제'들을 즐기며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누린다.

이 같은 미국인들의 문화사랑은 광주 시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세계적 도시 뉴욕과 광주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뉴욕의 넘쳐나는 문화이벤트들과 이들을 마음껏 즐기는 뉴욕객들의 일상은 광주 시민들의 그것과 판이하다. 광주시립미술관의 경우 연간 관람객 수가 5만 명(작년 기준)을 넘지 못하고, 공연인구는 140만 인구 가운데 1%인 1만여 명에 불과하다. 전시회를 찾는 관람객이 적다 보니 전

업작가들은 창작을 접고 생계를 위해 공사관을 전전한다. 척박한 공연문화는 '광주=공연 불모지'로 낙인찍혀 대형무대를 구경하기가 어렵다.

비엔날레·'시카고' 등 풍성

하지만 올 가을은 광주시민들에게 '명예회복'의 기회가 될 것 같다. 지난 5일 개막한 2008 광주비엔날레를 필두로 크고 작은 문화행사가 경쟁하듯 관객들을 손짓하고 있기 때문이다. 루벤스 명화전, 국립광주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그 유구한 문화의 도시-Rainbow Gwangju', 시립미술관-국립대 미술관 교류전,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모노로그'전, 충장로축제, 임방울 국악제, 정음성 국제 음악제 등 면면 또한 화려하다.

여기에 초대형 뮤지컬 '시카고'(10월 3~5일)까지 광주를 찾았다고 하니, 말 그대로 올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다.

요즘처럼 삶이 힘들 때 문화를 향유하는 것 만큼 좋은 활력소는 없다. 나들이하기에 좋은 계절, 가족들과 함께 문화현장을 둘러 보며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면 어떨까.

우선 을 추석연휴부터 아이들의 손을 잡고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중의공원으로 떠나자. '아 유 레디(Are you ready?)'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시설

미분양주택 사상 최대... 대책 서둘러라

광주·전남의 미분양주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대한주택협회 광주·전남도회의 집계 결과, 6월 말 현재 광주·전남 미분양주택은 1만4천가구가 늘었다. 이리다가 미분양주택(發) 경제위기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광주·전남 미분양주택은 전국 14만7천230가구의 10.1% 수준이다. 광주에만 7천490가구가 몰려 있다. 공식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은 물량까지 포함하면 분양시장의 상황은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다. 광주·전남 미분양 물량을 시가로 환산할 경우 3조원에 달한다니 보통 문재가 아니다.

침체된 지방주택시장이 살아날 기미도 없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0·1 세계 개편'을 단행했지만 거주기간 등 양도소득세 부과세 요건을 강화해 오히려 지방 건설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 지방주택시장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의 비중은 막중하다. 국내총생산(GDP)의 18.1%, 고용의 7.9%를 차지하고 있고 전·후방 연관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에선 비중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건설업의 침체는 건재와 가구업체 등에 타격을 줘 지역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부를 수 있다.

상황은 심각하다. 대한건설협회는 미분양 적체에 따른 자금 경색으로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 건설업체의 위기가 금융권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처럼 경제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정착시키고 지방의 미분양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상향조정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길 촉구한다.

광주·전남 교통사고 '전국 1위' 부끄럽다

광주·전남의 교통문화가 낙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광주는 교통사고 발생률에서, 전남은 사망률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4년째 1위 행진을 하고 있다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광주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67.3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위다. 전남은 143.1건으로 3번째였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남이 서울보다 5배나 높은 자동차 1만대 당 7.3명꼴로, 수면극여 지점으로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8월 무더운 여름날 영암군 금정면을 시작으로 9월까지 8개 시·군, 22개 읍·면을 찾아다니며 주민과의 격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잘못된 교통문화와 안전 불감증이다. 광주·전남의 교통질서는 엉망이다. 끼어들기, 과속, 불법 U턴,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가 판을 치고 있다. 간선도로까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의식도 위험을 높이고 있다.

오죽하면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운전하기 힘든 도시라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을까. 잘못된 운전습관과 안전 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진 교통사고는 늘어난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전남의 열악한 도로사정까지 겹쳐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률 및 사망률 1위 행진은 '4년 연속'에서 멈춰야 한다.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는 운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급조했다는 지적을 받은 도로사정까지 겹쳐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無等鼓

얼마 전 발표된 '생활공감정책'을 보며 문득 '감동의 정치'를 생각해본다. '공감'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여론중 국민들의 마음을 사려는 의도가 묻어있지 않나 싶어서다.

나라의 생사는 국민의 마음에 달려있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정치지도자의 '감동 정치'다. 세계 정치사에 이런 감동 정치의 표본이 미국의 루스벨트와 영국의 처칠이다. 1930·40년대에 두 나라의 자칫 망할 수도 있었다. 미국은 대공황에 경제가 바닥을 드러냈었고, 영국은 막강 독일군의 위협을 받았다.

이 때 루스벨트와 처칠은 감동의 정치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국가 재건에 성공했다. 그래서 두 지도자의 영웅적 행위는 오늘날 세계 정치사에 길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생활공감정책'은 기존 정책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신선도가 떨어진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했지만 내용은 낡은 것들이다.

아양의 논평처럼 부유층·대기업을 위한 부동산 대책, 세계 개편안으로 비판을 받아 무마하기 위해 내놓았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경제정책 혼선에 따른 국민 불안이 커지는 시점에서 이런 정책 발표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정치지도자의 '감동 정치'다. 세계 정치사에 이런 감동 정치의 표본이 미국의 루스벨트와 영국의 처칠이다. 1930·40년대에 두 나라의 자칫 망할 수도 있었다. 미국은 대공황에 경제가 바닥을 드러냈었고, 영국은 막강 독일군의 위협을 받았다.

이 때 루스벨트와 처칠은 감동의 정치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국가 재건에 성공했다. 그래서 두 지도자의 영웅적 행위는 오늘날 세계 정치사에 길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생활공감정책'은 기존 정책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신선도가 떨어진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했지만 내용은 낡은 것들이다.

이제 가지고서야 어떻게 '감동'을 주고, '공감'을 얻을 수 있었는가. 루스벨트나 처칠과 같은 '감동'을 주지는 못할 지라도 '공감'이라도 얻을 수 있는 지도자와 정책이 아쉬운 요즘이다.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공감 정책'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류동훈



광주에는 많은 가수들이 있다. 그들 중에는 음반을 낸 사람도 있고, 라이브 카페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하철역, 무등산 등산로, 첨단 호수공원, 대학가 등에서 각종 무료 공연으로 시민들과 함께 한다. 이들을 만나고 싶으면 라이브카페에 가면 된다. 정답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며칠 전 지역의 한 가수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자신들이 노래를 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뒤에 서 이렇게 말한다. "지금 뭐하는거지? 음. 비메이커 가수들이 노래하는가 봐. 삼류가수들..." 이런 이야기를

삼류가수 취급을 받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다.

"그대가 진정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을 우주의 중심이라 생각하라!!" 지역 가수들을 삼류가수라 부르는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우리 지역의 가수가 삼류가수면, 바로 내가 삼류 시민이다. 우리 지역의 가수가 일류가수면 바로 내가 일류시민이 된다.

전국 각 지방 주민들이 서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로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지 못한다면 나의 행복이 감소한다. 지역에서

지역 대중가수를 일류가수로 만들자

들으면 참으로 서글퍼진다. 것이다.

그들도 노래를 잘하고, 좋은 노래도 많이 있다. 그런데, 시민들 앞에서 자신의 노래를 부르면 왠지 쭈뼛쭈뼛해진다. 자기 노래를 시민들이 잘 모르게 때문에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까 걱정해서다. 그래서 유명 가수들의 노래와 자신의 노래를 함께 부른다는 것이다. 또 무료로 봉사해야 하는 행사에는 도와 달라며 공연 요청이 많지만 예산이 확보된 행사에서는 서울 가수들을 초청한다는 것이다. 출연 금액도 지역과 서울의 차이가 커 차별받는다. 것이다.

필자는 그래도 그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고맙다.

유난히 대중문화에 있어서는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큰 것 같다. 중앙공공과 방송 중심의 대중문화 시장은 지방에서 활동하는 대중문화 예술인들에게는 힘겨운 장벽이다. 단지, 지방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지역 가수들이

많은 대중가수들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다. 이들과 함께 지역을 위한 각종 봉사,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우리 지역 가수가 일류가수로 대접하는 의식의 전환이 있다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행사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광주문화도시 사업은 지역 대중문화 예술인 사랑운동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행히 오는 26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열리는 '대중교통사랑 시민 콘서트'에 지역 대중가수 사랑 운동과 대중교통 사랑 운동이 함께 진행된다고 한다. 대중가수는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중가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콘서트다.

이렇게 지역 사랑 운동을 대중문화에 술인과 시민들이 함께 벌여나갈 때, TV에만 등장하는 대중예술인이 아닌 나를 알아주고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중 스타가 탄생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광주를 원한다.

<<광주전남행복발전소 사무처장>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대학생 열차려 MT문화 하루빨리 버려야

지난 주말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으로 늦은 휴가를 다녀왔다. 꽤 많은 피서객들이 있었다.

그런데 초등학생 딸이 "엄마, 저 사람들이 왜 혼나는거야?"라며 한쪽을 가르켰다. 대학생들이 수련회를 온 듯했다. 젊은 남자 두 명이 10여명 쯤 되는 후배들에게 열차려를 주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것도 한탄의 열차려는 보기에 좋지 않았

다. 심하게 말하면 군대식 열차려에 반감이 일고 보기에 좋지 않았다.

체벌도 나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그것도 의식이 때어 있다는 젊은 대학생들이 군대식 문화에 젖어 아랫사람을 훈육하는 모습은 아직도 후진적 사회문화를 보여주는 단면인 듯했다. 하루빨리 버려야 할 문화다.

▲이선화·광주시 서구 마북동

기고

김철우



요즘은 공개 행정을 지향한다.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주민에게 공개한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면 정책은 정당성을 상실하고, 주민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비록 행정의 공개방식이 다양화되고, 공개 사항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많이 부족한 듯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제 소통행정(疏通行政)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소통이란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소통을 위

고 힘들지만 결코 무서운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 또한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추진되는 찾아가는 주민지원사업 설명회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지정으로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8월 무더운 여름날 영암군 금정면을 시작으로 9월까지 8개 시·군, 22개 읍·면을 찾아다니며 주민과의 격

정책은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문제를 정확히 알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은 높아지고, 요구사항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때 주민과 현장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제 행정도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행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적 흐름이 아닐까?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태권도 '스카이 콩콩' 비아냥... 경기 규칙 재정비 절실

태권도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국의 자존심을 지켰다.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문대성 선수는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되는 영광까지 안았다.

하지만 태권도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올림픽 태권도 경기를 지켜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선수들이 승리에만 집착해 너무 소극적으로 경기에 임해 지루하고 재미 없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스카이 콩콩' 게임이었다는 비난까지 일었다.

선수들의 소극적 태도는 태권도가 재미없는 운동이라고 인식돼 결국 비인기 종목으

로 전락하고 또 다시 올림픽에서 퇴출될 수 있다.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구사하면 점수를 더 주고, 방어 위주의 도망다니지 못하도록 경기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또 펜싱처럼 선제 공격이 유리하도록 하고 발차기 후 일부러 넘어져 상대 공격을 원천봉쇄하는 등 비인사적 행동에도 벌점을 줘야 한다.

태권도의 부흥을 꾀할 수 있도록 경기 규칙의 재정비가 절실하다.

▲유은진·광주시 서구 덕흥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善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가)1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29 경 처 부 2200-616 정 처 부 2200-617 사회 1 부 2200-618 <F A X 222-4267>	사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제작부 2200-628 체 육 팀 2200-627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F A X 02-773-933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F A X 22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